



Bigdata Analysis

#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7년 7월 ~ 8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호주, 팜유, 라벨링, POFCAP, RSPO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팜유, 라벨링, POFCAP, RSPO 등



##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 “호주, 팜유 프리 인증제도 시행”



Bigdata Analysis

#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 호주, 팜유 프리 인증제도 시행

호주 정부는 상품 공급 사슬 내에서 팜유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과 일반 제품을 구분하기 위해 팜유프리인증(POFCAP) 라벨링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POFCAP 라벨의 도안은 2017년 8월 19일 세계 오랑우탄의 날의 날을 맞아 발표되었다. 호주뿐만 아니라 영국도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며, 호주와 영국을 제외한 14개국 또한 해당 라벨링 제도를 자국 시장 내에서 사용할 의사를 밝혔다.

POFCAP 라벨링 제도 개발팀의 Bev Luff에 따르면, 팜유프리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POFCAP팀에 팜유프리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많은 기업이 팜유를 사용한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 모두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인증은 기업 차원이 아닌 제품 차원에서 이뤄진다. POFCAP 라벨링 제도 개발팀이 신청서를 검토하게 되며 해당 제품이 팜유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만들었다는 것이 증명되면 팜유프리인증을 받게 된다. 인증을 받은 회사는 제품에 POFCAP 라벨을 부착해 사용하게 된다. 현재 많은 기업이 팜유프리인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호주, 영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가 팜유를 사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팜유 사용이 환경을 해쳐 오랑우탄을 멸종위기종으로 내몰았고 기후 변화를 일으켜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켰기 때문이다. 팜유는 기름야자 열매를 압착해 만드는 식용유이다. 팜유 제조업자들은 기름야자를 얻기 위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기름야자 숲을 파괴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기름야자 숲을 서식지로 삼는 오랑우탄의 개체 수가 줄어들고, 숲 파괴로 인해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기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호주, 영국 및 기타국들의 팜유 프리 인증제도 시행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팜유에 대한 인식 또한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 오염의 위험성을 인지한 시민들이 무분별한 팜유 제조가 아닌 보다 건전한 팜유 제조 단계를 갖춘 지속가능한 팜유(sustainable palm oil)를 생산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을 위한 협의회(RSPO)를 설립했다. 기업들 또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팜유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향후 POFCAP 라벨링 제도의 발달 과정 및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팜유 프리 인증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적용 필요 여부, 혹은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 팜유 프리 인증제도 시행에 대한 세부 내용의 링크는 다음과 같다.

<https://www.businessgreen.com/bg/news/3015528/palm-oil-free-certification-programme-launches-in-uk-and-australia>

1. Palm Oil Free Certification programme launches in UK and Australia, Business Green, 2017.8.14
2. Palm oil free certification scheme launched, Food Navigator, 2017.8.14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